

만남

02

2023
통권 588호

특집 인터뷰
2023 영락의 희망을 묻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기도에 불 불은 영락 성도들

-1월 한 달간 기도드림, 특별금요기도회 열려

영락의 성도들은 새해 <첫 달 기도드림>으로 새 각오를 다졌다. 본당 기도처의 개방으로 주중 스스로 1시간 이상을 정해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금요기도회로 1월 13일(금), 20일(금), 27일(금) 저녁 7시 30분 세차례 열렸다. 금요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하여 1차 금요기도회는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히브리서 4:15~16)’, 2차는 김윤성 위임목사가 ‘정직한 자의 기도(잠언 15:8)’, 3차 박춘광 목사(신동탄지구총교회)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열왕기상 18:41~44)’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불을 지피는 한 해가 되길 다짐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교회표어

말씀따라 행진하라
(민수기 9:23)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예배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한 사람에서 시작하는 부흥 김운성

특집 인터뷰 04 2023 영락의 희망을 묻다 <1>

땅끝까지 이르러 14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김현진
16 ‘전도의 기쁨’ 맛본 후…날마다 설레요 구선숙

야곱의 우물가 17 천국 향해 한 계단씩 오미숙
18 진리를 찾아…소설 속에 숨겨둔 ‘전도코드’ 박세환

영락의 울타리 20 ‘활인의 꿈’ 찾아주신 하나님 박명일
22 ‘가장 낮은 교회’로 세우소서 노대웅
24 수학으로 다시 보는 명화 ‘최후의 만찬’ <2> 계영희
27 겨울 불청객 호흡기질환 ‘예방의 정석’ 임대현

문화광장 30 사귐의 기도 박용준
31 산상변모주일 찬송: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백정진
34 천국으로 가는 계단(라몬 울 기념비) 편집부

표지설명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에로…
이보다 더 찬란할수 있을까. 기다림은 기대로부
터만 가능하다. 믿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2)

교회소식 35 전세대 성탄예배 ‘다시 예수의 길로’ 외
43 2023년 신임교역자 프로필
44 2023년 목회 분담표
46 2023년 제직부서 부장·차장
51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 2월 목회력
53 2023년 교역자 목회분담표

한 사람에서 시작하는 부흥

김운성 위임목사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하박국 3:16~18)

평생 도덕 선생님으로 사신 장로님으로부터 “목사님, 도덕을 말하는 사람이 가장 비도덕적인 것 같아요”라는 한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거들을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양심과 도덕을 말하면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들의 비양심적 일탈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박국은 양심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부조리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가 살던 주전 7세기의 남왕국 유다는 매우 부패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하박국 1장 2~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

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의 항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쳐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 사람이란 바벨론의 막강한 군대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은 더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갈대아 사람을 데려다가 그나마 하나님을 부르는 유다를 징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은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닌 게 아니라 당시 바벨론은 주변 약소국들을 무자비하게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이 사실을 들어 하나님께 계속 항의했습니다. 하박국 1장 17절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박국의 항의와 하나님의 응답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회적 부조리와 악은 해결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지구촌에서 모든 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백 퍼센트 진리와 정의가 구현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나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담은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의 개혁과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판도 제기하고 개혁을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백 퍼센트 온전한 사회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개혁을 외치는 우리 자신에게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사회가 불가능합니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충고할 때, 완벽한 부부가 되라는 말은 못합니다. 그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는 부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완벽한 신랑도, 온전한 신부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는 그의 항의로 남 왕국 유다가 완벽해졌다는 결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었습니다. 여전히 남 왕국 유다는 악했습니다. 게다가 하박국 3장 16절에서 보듯이 바벨론 군대가 가까이 온다는 말에 창자가 흔들리고, 몸이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3장 17절은 농사도, 목축도 모두 실패여서 하박국 개인의 삶도 매우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18절에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하박국의 시선이 밖에서 안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깥세상을 보면 절망하고 원망하며 개혁을 요구하던 그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4절 후반부에서 고뇌하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자신을 돌아보자,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를 제기하는 하박국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서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부흥은 집단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적 차원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각자에게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부흥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공동체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공동체는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분위기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개인의 일입니다.

2023년을 <1월의 기도드림>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거룩한 일을 계속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흥될 때, 영락교회 전체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만날**



왼쪽부터 당회서기 박일환 장로, 선교·사회분과 김재완 장로,
행·재정관리분과 차재능 장로, 교육분과 박홍준 장로, 교구·목양분과 정경섭 장로

청년들 맘껏 뛰게 교회의 門 활짝 열겠습니다

】

2023년 성도 여러분의 소망 씨앗은 굳건하게 심어졌습니까. 영락교회는 ‘말씀따라 행진하라’라는 목표 아래 〈첫 달 기도드림〉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1945년 12월 2일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영락교회는 예배·교육·선교·성도의 교제·봉사를 5대 본질로 삼고 바른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회 창립 80주년을 눈앞에 둔 2023년, 『만남』은 김운성 위임목사의 목회 구상을 실행하는 선교·사회분과, 교육분과, 교구·목양분과, 행·재정관리분과와 당회 서기 신임 장로 인터뷰를 통해 우리 교회가 분야별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올해를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이들은 “청년이 영락의 허리이자 미래이므로 MZ세대와의 소통에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문화선교와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준비 등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교·사회분과, 교육분과, 교구·목양분과의 장로 인터뷰를, 3월호에서 행·재정관리분과와 당회서기 장로 인터뷰를 실습니다.

글 이재향 기자, 정용성 편집위원 사진 유승현 선임기자

선교·사회분과위원회 김재완 장로

영락교회의 첫 이름은 벤아니전도교회였다. 예수님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 모든 크리스천의 사명은 주님을 전파하는 일이다. 우리 교회는 첫 출발부터 선교의 사명을 강조해왔다. 흔히 선교부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선교·사회분과위원회로서 교회와 세상을 잇는 다양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올해 선교·사회분과위원회를 섬기는 김재완 장로를 만났다.

선교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회분과위원회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나요?

선교·사회분과위원회에는 선교부, 북한선교부, 의료선교부, 사회봉사부가 있습니다. 이 중 선교부는 ① 농어촌, 군, 학원, 기관에 선교하는 국내선교팀 ② 해외 선교, 외국어 예배, 선교 훈련, 미디어 선교를 담당하는 해외선교팀 ③ 기획, 사역, 문화교실로 구성된 문화선교팀이 있지요. 또 선교부는 교회 내 여러 봉사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여전도회는 농어촌선교, 2여전도회는 군선교, 3여전도회는 해외선교, 4여전도회는 MK사역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선교가 많이 위축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선교 계획이 있으신지요?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을 살짝 보여주시면 성도들과 같이하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선교 대상 지역에 목회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워 현지인을 제자로 양육하여 지도자로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처럼 통제·압박·핍박이 심하거나,

인도처럼 항시 추방의 위협이 있는 선교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

외국인들 제자훈련
본국 파송 선교에 집중

문화, 선교의 시대적 도구
군·농촌 등 스마트 교육 효과적

청년 문화선교 꽂피는
전용 소극장 간구 중

”

되면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사역을 뒤로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의 거취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도 목회자 선교의 확장을 어렵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의 규모에서 관리시스템을 갖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선교 전략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안을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전문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선교지로 들어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사역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그러나 선교활동이 제한적이고 장기간 체류가 어려운 선교지라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현지 동역자와 협력 네트워킹 하는 방법도 있지요. 그를 위해서는 선교가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히 훈련받아 준비하고, 교회와 협의하면서 사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자로 훈련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대안에 집중하고 있지요. 주로 러시아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6개 외국어 예배부에서 약 7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미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강남 교구에서 지원하여 신학을 공부했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는 많은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회와 접해있는 다양한 문화는 ‘선교의 대상’이나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선교는 매우 폭넓고 참여의 문턱도 낮아요. 올해는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선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문화선교의 저변을 넓히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선교학교가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직접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문화적 감각과 복음의 열정을 갖춘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지요.



왼쪽부터 조성희 안수집사(문화선교 차장), 손두상 안수집사(해외선교 차장), 김재완 장로(선교부부장), 최범용 안수집사(국내선교 차장)

문화선교라고 하면 더욱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청년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선교의 신선한 바람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부 하기선교봉사는 지역교회를 찾아 여름성경학교, 의료, 미용 섬김 등의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는 빠르게 변화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스마트교육 등 문화선교를 지향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난해 미디어선교 팀과 3남선교회에서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해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문화선교는 또 군선교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 교회 고유의 선교 사명으로 군선교를 꼽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교회를 지어주는 하드웨어에 집중했는데, 좋은 환경에서 자란 요즘 병사들 눈높이에서는 시설이 잘 갖추어 있어야 관심을 주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이 군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려면, 미디어를 활용하여 성경을 잘 설명하는 문화선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문화적 힘을 보여왔습니다.

교회 내에서 문화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제목 중 하나는 소극장을 문화선교 전용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젊은이의 퍼포먼스가 상시 진행되며, 교육부의 각종 문화 행사가 펼쳐져서 뜨거운 선교 열정이 넘치고, 영화도 상영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부 내에서 진지하게 대화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궁금해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통, 선교는 타 문화권에 나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선교와 전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선교는 전도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여전도회와 남선교회라는 명칭을 쓰는 봉사단체 이름을 선교로 통합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교회에 부부선교회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질의 식과 유사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지요. 비전을 품은 사람은 열정이 있기 마련이니, 선교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관심에 따라 소그룹으로 묶고 각 소그룹을 연계하면 선교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그룹에 관한 관심은 다른 부서에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은 기존의 틀을 무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소그룹의 시작은 우선 교구 내에서 구성되어야겠지요. 이를 위해 1만 2천 명의 구역장들이 모두 소그룹 리더로 교육받았습니다. 선교부 차원에서도 소그룹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많은 소그룹의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선교를 중심으로 여러 소그룹을 연결하면 결국 교구를 초월한 큰 틀의 선교사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지요. 활성화된 소그룹이 기존의 전문가 소규모 단체로 이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선교부를 섬기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불씨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문화선교의 문턱을 낮추어 모든 성도가 선교에 동참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특별히 청년들이 이른 나이부터 선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미래 교회의 허리
MZ 눈높이 사역 시작

타부서와 수평적 연결 중요
교육부부터 유리천장 깰 것

50주년기념관 로비 등 유휴공간
미래세대 맞춰 리뉴얼 논의 중

”

교육분과위원회 박홍준 장로

교육은 영락교회 5대 본질 중 하나이다. 교회 창립 때부터 교육은 영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사역이고, 1세 (영아부)부터 30대 중반(청년부)까지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키워내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왔다. 교육부 안에는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키워내는 교사교육부를 포함하여 13개 부서가 활동하고 있다. 올해 교육분과위원회를 섬기게 된 박홍준 장로는 “교육부 부흥이 교회 부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청년은 교회의 허리로서, 그 허리를 효과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교육부의 미래 사역”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교육분과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공교육 학제와 유사하게 1~3세부터 시작하는 영아부, 4~5세의 유아부, 6~7세의 유치부, 1~2학년의 유년부, 3~4학년의 초등부, 5~6학년의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있고, 청년부, Cebc, 사랑부. 교사교육부 이렇게 13개 부서가 있습니다. Cebc는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며, 사랑부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체장애인을 위한 활동과 참여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부서입니다. 교사교육부는 말 그대로 교사를 양성하는 부서로써 교사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 및 교사 재교육 등을 통해 교사로서의 소명 의식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교회학교가 당면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문제는 교회학교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계몽하던 과거에는 교회학교에 가면 새로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교회학교로 관심을 끌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정의롭고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에 힘을 더 쓸어야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교사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쳤지만, 이제는 교육의 주체가 학생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교사는 학생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매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교회의 교사나 어른들은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앞으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연결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 내 단위부서 간의 연계, 협력 부분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취학 아동이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그리고 이어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로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연결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가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교육부와 선교부, 교육부와 목양부, 이처럼 각 부서를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교육과 목양 그리고 선교가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연결된 믿음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부가 가져야 할 미래지향적 사고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의 청년부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으로 보호되어어서, 기성세대가 주도하는 교회의 운영에 끼어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교육부의 유리천장을 깨뜨려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의 중심에 들어오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육부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부가 교육부에 속해 있는 구조에 대해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부까지를 교회의 교육이라 여깁니다. 왜냐하면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신앙을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교회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나이로 보면 다음 단계인 4남선교, 3남선교로의 연결이 어려운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4남선교 회원, 4여전도 회원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교육과 목양, 선교가 하나의 연속체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각각의 부서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 제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 사역이 시작되는 것인가요?

청년 사역이 새로 시작됩니다. 오병훈 목사님이 가칭 ‘MZ 사역’을 전담하여 시작합니다. 청년부에서 시작해서 청년 선교회 3040 세대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교육부는 청년들의 문을 열어주고, 각 교구에서는 3040 세대가 목양으로 스며들게 해서 우리 교회의 하리를 만드는 과정이 자연스레 이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목양과 교회 교육을 연결하여 시대를 전환하는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위해 기성세대들이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3040 세대의 시각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 그랬듯이, 기성세대는 겸손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 거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40 세대가 마음 놓고 봉사할 수 있도록, 어린 자녀를 돌봐주는 섬김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80주년 기념사업 중 코이노니아 사역으로 직장과 육아에 지치고, 자녀들 교육에 민감한 3040 세대들이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는 논의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가 지역사회를 둡기 위해 영유아 데 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 것까지 폭넓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근에는 백병원, 은행, 국세청, 관세청 등 규모가 큰 근무지들이 많이 있는데, 3040 세대 자녀들의 데이케어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린이들을 돌보아주면 이들의 현실적 필요를 교회가 해아리는 것이 되니, 3040 세대가 교회에 마음을 열고 영적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시설 중, 현재 교육부가 사용하고 있는 50주년 기념관의 1층 로비는 미래 세대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총마다 죽은 공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편안한 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는 분들의 평균연령이 높아 빠르게 변화하는 학생들과 큰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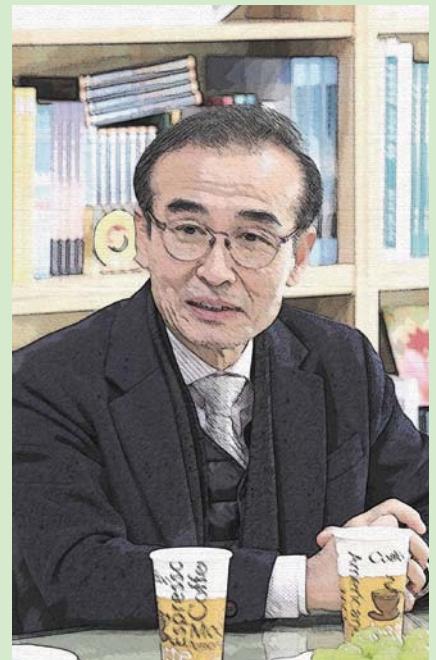
이 문제는 “교육”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모든 교사를 교육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간의 문제점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예외 없이 그리고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교사와 신임 교사는 서로 다른 맞춤형 교육을 받게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교육 계획을 위해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끝없는 사랑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부흥과 기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3040 세대를 교회의 중심 허리로 만드는 청년 사역 성공을 향한 절실히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교구·목양분과위원회 정경섭 장로

목양분과위원회는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 영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제직 부서이다. 현재 18교구 1,099개 구역으로 구성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회 방침에 부합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핵심 업무이다. 이를 위해 교적 관리와 제직 후보자 선발 및 교육, 교인 심방, 산상기도회, 교구 친교회 등 전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3년 새로 교구·목양분과위원회를 섬기게 된 정경섭 부장 장로와 만났다.



교구·목양분과위원회는 어떤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목양부와 음악부, 새가족부, 친교부, 상담부, 경조부, 제자양육 훈련부, 전도부 등 8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음악부에는 임마누엘, 갈보리, 시온, 호산나, 베들레헴, 갈릴리, 할렐루야, 베다니의 8개 찬양대가 있으며, 교회 전체의 양육훈련체계와 신앙 성장 로드맵을 제시하는 제자양육훈련부에는 단위부서로서 소그룹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목양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2023년 첫 달을 기도드림으로 시작하고 한 해 동안 기도로 이어가는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시는 목회계획을 김운성 위임목사님께서 세우셔서 첫 달 기도드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집중적인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기도회가 세 가지 방향으로 달라집니다. 첫째, 본당에서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그동안 부속관 벤엘에서 가졌던 기도회를 예배와 기도처의 중심이 되는 본당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새벽기도회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송출합니다. 거리상의 문제 등 여러 어

“

본당 새벽기도 시작
온라인 실시간 송출

예배 참석 어렵게 하는
육아, 주차난 … 해소 시급

구역모임 갈수록 힘들어져
코이노니아 소그룹 적극 지원

”

려운 상황으로 인해 이른 새벽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셋째, 함께 기도할 성도들을 둑어 기도하게 하는 소그룹 기도 형태입니다.

지난 1월 신년 예배에 사흘 연속 열린 신년기도회는 김운성 위임목사께서 기도회가 축제의 마당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기도회에 오시는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모두가 잔칫집에 참여하는 마음이 들도록 말이죠. 1월 4일 수요일 안수집사회가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또 안수집사회와 자원봉사부가 새벽부터 교통안내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 층은 두텁고 젊은 층이 얇은데, 목양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영성 분과에 15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4남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3040 세대는 청년부, 청년선교회, 부부선교회와 4남선교회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강한 열정과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의 구심점으로 결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청년부와 MZ세대로 통합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대는 육아, 직장, 가사노동으로 누구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평안과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기 엄마가 아기 기저귀 갈아 줄 공간조차 없는 상황, 주차 공간이 없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성도가 교회 문 앞에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젊은이가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게 만드는 심각한 이유입니다.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부모에게 주차장을 양보하고, 엄마와 아기가 함께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도

록 자모실과 화장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원봉사부에서 어린이와 함께 교회학교에 오시는 부모들을 위한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감을 얻었으니 빠르게 실행해서 젊은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찍이 교구 제도를 두어 성도들의 교제와 신앙생활을 지원해왔습니다. 최근에 구역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신앙은 개인의 결단과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경험할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 교구에서 가까운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지역 기준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는 ‘구역모임’의 형태로 나눔의 교제와 신앙 양육을 해 왔습니다. 교구담당 목사의 지도를 받으며, 구역장과 권찰의 책임 아래 정기적인 예배와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지요.

하지만 이런 구역모임이 실제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감소해서 새로운 구역장을 세우기 어렵고, 구역원 간 세대 차이가 커서 원활하게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교구로 이사한 후에도 교구 전환 행정처리를 하지 않아 전입 및 전출 구역 모두 실제적인 구성이 어렵고, 자기 집 공개를 꺼리는 시대적 변화로 구역모임의 공간이 없어지는 문제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구역장 은퇴 나이를 75세로 연장하며 젊은 구역장을 육성하려는 노력도 했고, 또 나이 많으신 구역장을 도울 수 있도록 구역 권찰 제도를 부활하는 등 여러 방안을 시도해 봤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구역이 살면 교구가 살고 교구가 살면 교회가 산다’ 목양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이라는 대안을 찾았습니다. 교구의 범위 내에서 지역 중

심 공동체가 아니라, 나이, 취미, 직장, 자녀 등 관심의 유사성을 가진 교인끼리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소그룹’은 일방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교제(코이 노니아)에 참여하여 자기 삶을 나누고 변화를 누리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도자 훈련, 친교, 전도 등 효율에 중점을 둔 ‘셀 모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 구역 활성화가 제대로 되면 소그룹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구역모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그룹’이 뒷받침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 목양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본당을 열어 새벽기도회를 시작한 것처럼, 주중에도 교회를 개방하여 소그룹 모임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역뿐 아니라 소그룹도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교회 행정 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은퇴하는 분

들도 많습니다. 은퇴 준비를 하는 교인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고령화가 사회적 고령화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와 달리 교회에서는 은퇴자들이 노인으로 대접받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교회사역의 주체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나이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건강 수준, 역량, 달란트 등을 고려하여 주중에도 적절히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퇴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그룹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회의 여러 부서는 시니어 리더를 양성하여 교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기도회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힘써 참여해 주십시오. 교회 안의 작은 공동체 ‘구역모임’과 ‘소그룹’은 초대교회 공동체, 특히 열두 제자의 공동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그룹 활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만남**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5)

안녕하세요 '22년 38기 전도폭발훈련 2단계의 12주 훈련과정을 잘 마치고 수료한 훈련자인 저는 '21년 36기에 구역 권사님의 기도후원자로 전도폭발에 입문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기도 후원자는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으니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37기 전도폭발훈련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1단계 훈련생이 되었고, 38기에는 2단계 훈련자가 되었습니다.

훈련자로서 전폭훈련에 임하면서, 저와 같은 조의 훈련생님이 개강예배 바로 전에 코로나에 감염되셨는데, 아픈 분께 연락드리기 부담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훈련자로서 섬겨야 할 훈련생님이 예정대로 훈련에 잘 참여하시고, 모든 과정을 마치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일면식이 없는 새로운 분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전도"라는 예측 불가능
한 미션을 함께해야 한다
는 긴장감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지혜를 주셨
습니다. 아침마다 훈련생



김현진 집사
서대문·은평교구

님께 해당 주차에 암기할 부분을 괄호 넣기 문제로 만들어 보내드렸고, 훈련생님은 그 괄호 안에 성실히 답을 채워서 제게 보내셨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 매일 새로운 문제를 만들면서 '복음제시 전문'에 오랜 시간 머물렀는데, 그때마다 시간이 멈춘 듯,고요한 평안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와 매우 가까이에 계시는 듯했고, '복음제시 전문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 했었습니다. '매일 아침 괄호 넣기 문제를 풀면서 복음제시 전문을 읊조리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종종 말씀하신 훈련생님의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총 3회를 채워야 하는 개인전도 미션을 시작하면서, 자주 방문했던 카페의 여자 사장님께 용기 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은 카페 손님이 저밖에 없던 보기 드문 날이었는데, 성당에 안 간지 너무 오래된 천주교 신자 사장님께서는 자기와 같은 사람도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물으셨고, 복음을 다 들으신 후에 결심하며 10년 동안 교회에 가지 않는 자신의 예비신랑에게도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냐고 물어오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예비신랑의 어머니는 저와 같은 교구 같은 구역에 계신 분이셨고, 구역예배 때 제 옆에서 막내아들이 10년째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며, 목사님께 기도부탁을 하셨던 권사님이셨습

니다.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는 방식을 보면서 놀라웠고,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지 깨달았으며, 전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개인전도 대상자 중에는 당신의 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소개받은 분들을 저희 조의 팀 전도 대상자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가정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난에 처해 계셨습니다.

‘22년 10월 31일 월요일, 복음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6번째 팀전도를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전도대상자 분은 3년 전에 저의 지인이 다니는 교회에 나오신 분으로, 남편의 상습적 폭력으로 인해 어린 자녀 두 명과 함께 임시보호소에 계셨습니다. 줌(Zoom)으로 만난 여성분은 어두운 조명 속에 옆모습이 보이는 각도로 10살된 큰아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인사를 나눈 후 복음제시를 시작했고, 훈련생님이 전도대상자 분께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함께 있던 큰아들이 하루에 5번 죄를 짓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침 유년1부 교사로 섬기고 있던 훈련생님이 평소 본인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대하듯 그 큰아들과 재미있게 대화하기 시작하자 아들의 웃음을 본 전도대상자 분이 정면을 향해 앉으시며 복음을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만 이날 결신하신 며칠 후 “그 날 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복음이 필요하신 분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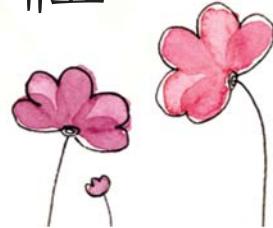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5) 라고 대답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옆으로 당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번 38기 훈련을 마치면서 ‘아마도 이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베드로도 당신의 믿음 없었음을 깨달았던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나, 예측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것을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과 함께 복음이 전파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설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기에 전도폭발 3단계 훈련도 참여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전도의 기쁨’ 맛본 후…날마다 설레요



전도폭발 훈련생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집으로 훈련교재들이 도착했을 때도 전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매주 1회 두 시간 정도만 훈련하는 줄 알았지만 팀전도와 개인 전도 등 외워야 하는 학습량과 기도 나눔 등 1단계 밖에 안되는데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등록했으니 끝까지 해보자는 심정으로 1주 차마다 팀전도와 개인전도를 통하여 복음제시하는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마다 저와 전도 대상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에게 관계 전도할 때도 전도폭발 복음 제시로 영생에 관해 질문함으로써 당

시에 결신하지 않았던 사람도 언젠가는 천국 가는 방법이나 구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20년 이상 친척 전도가 가장 힘들었는데 불교 신자였던 큰어머니가 일단 결신하며 저를 따라 기도했던 일은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전도폭발훈련 이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큰엄마는 “절대 교회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복음제시 후에 “또 모르지 교회 같지도” 하며 마음을 조금 여셔서 놀라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셨음도 압니다. 많은 사람이 이 좋은 전도폭발 훈련을 선택하셔서 더욱 더 깊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 방법의 훈련을 통해 영생의 기쁜 소식을 더욱 잘 전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또 한명의 전도 대상자가 기다려지며, 전도폭발 훈련자와 훈련생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사명, 그리고 예수님의 기뻐하심과 선물이 기대됩니다.

목사님, 전도사, 그룹장 그리고 저의 훈련자와 기도 후원자님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기도 감사드립니다. 사명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쓰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날**



구선숙 성도
종로·성북교구

천국 향해 한 계단씩...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13)



높이 33cm 윗면 가로19×세로 5cm
재료: 조형물, 척철유, 안료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의 모든 삶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
의 계획 아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도예 작가로서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던 저는
언젠가부터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고 성경 말씀
접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학교 미술 치
료 강사인 저는 매주 수요일 흙과 도예 도구를
재활병원으로 나르며 중복 장애아 친구들과 수
업하며 만든 작품으로 한 달간 병원 로비에서
전시회를 하여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게 했
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부 교사로서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사랑부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주
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계단씩 천국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
고 말씀 따라 행진하
는 한 해가 되시길 소
망합니다. **안남**



오미숙 권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사랑부 교사

••• 진리를 찾아…소설 속에 숨겨둔 ‘전도코드’

〈진정한 승리〉



박세환 집사
인천교구
부부선교회, 유아부 교사

솔직히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제대로 해 본 일이 없다. 청년부 하기선교봉사에 참여하여 그나마 처음 뵙는 어르신들에게 해봤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니었다. 친구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말만 해봤지 간절한 마음으로 끈기를 가지고 전하지는 못했다. 그들이 귀찮아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업무가 맞물려있는 동료들에게는 더욱 못 해봤다. 주어진 업무가 바빠 옆의 동료가 어렵고 힘들어할 때 돋지 못했던 찜찜한 마음, 회의 때 선후배들과의 난상토론 상황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서 제대로 전도를 해볼 용기를 못 가져봤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회사생활은 왜 저래’와 같은 평가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글을 통해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처럼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싶었다. 하나님에 관해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재밌게 읽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3~5)

어떤 내용의 소설을 쓸까 생각하던 중에 목사님 설교 말씀이 생각났다. 우리는 천국 소망보다는 마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 산다는 것이다. 뉴스에서 전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의 대부분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빛의 세계에 사는 개구쟁이 천사들’ 이야기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아등바등 더 가지려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천사들. 가장 중요한 빛을 모른 채 사는 인간들을 보며 결국 누가 더 많이 전도하나 시합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인간의 세계로 내려가기로 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천사였던 기억은 모두 잊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전체적인 이야기 구상으로 보름, 실제 쓰기 시작하여 약 여섯 달 만에 글을 완성했다. ‘진정한 승리를 바라는 사람들’을 줄여 『진리』라고 제목을 붙였다. ‘진리’는 재밌고 유쾌한 판타지 소설이다. 하지만 나는 그 이면에 남다른 의미를 담았다. 바로 전도이다. 흥미로운 내용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다.

소설의 등장인물은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 안도, 20대 후반의 초등학교 선생님 보라, 60대 중반의 고위직 은퇴 공무원 창오, 20대 초반의 발달장애 직장인 다름이, 40대 중반의 사역자 애타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물로 태어난 이들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이야기는 그들의 세계로 내려간 다섯 천사들의 빛을

향한 고군분투기이다. 인간이 사는 그들의 세계로부터 빛을 믿는 사람은 빛의 세계로, 빛을 안 믿는 사람은 어둠의 세계로 가는 것이 이 이야기의 배경이다.

태어날 때부터 빛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천사가 있는 반면, 빛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빛을 믿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천사도 있다. 또 어떤 천사는 우상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한다. 과연 이들이 빛을 전할 수는 있을지, 그리고 천사였던 기억이 없는 이들이 다시 빛을 믿고 빛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이다. 나는 특별히 이 책을 20~30대 청년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낀다. **한남**



‘활인의 꿈’ 찾아주신 하나님

(活人)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학교에서 꿈을 물어볼 땐,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뭘 하고 싶은 건데? 제대로 말해봐”라고 다시 질문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린 저는 그 질문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십니다. “포래 친구들은 ‘대통령이요’, ‘과학자요!’라고 말하는데 너는 무엇이 되고 싶은 거니?”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하고 싶은 ‘직업’을 찾아야 칭찬받을 것이라 생각했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직업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볼리비아에서 목격한 빈곤

바로 1998년도에 남아메리카에 있는 볼리비아로 이민 생활을 떠나는 것이었죠. 저는 볼리비아 행정 수도인 라파스에 살았습니다. 평균 해발 3,700m 고지대인 라파스는 산소가 부족하고 압력도 낮아,

압력밥솥으로만 밥을 지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기초적인 호흡이 부족하기도 했으며, 고산병에 걸려서 몇 주간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볼리비아는 초등학교 4학년인 저에게 있어서 매우 낯선 땅이었고 언어도 생면부지인 스페인어를 배우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스페인어를 하지 못해요”였으며 다른 말은 전혀 몰랐습니다.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던 탓에 친구들과 깊이 교제하기 힘들어서 매일 밤 눈물을 흘렸던 저는 귀국하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해발 4,000m에 있는 알또 지역을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이라 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은 화장실이 없어서 하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먹을거리가 변변치 않아 뺨 하나로 가족 전체가 먹는 소위 달동네로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빈부격차는 세계 어디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노조가 있고 10대가 되면 합법적 노동이 가능한 나라인 볼리비아는 아동이라도 농장이나 광산에서 일할 수 있으며. 또 구두통을 든 구두닦이 아동의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어떤 아이들끼리는 손님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는 일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삶을 살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당을 지나갈



박명일 전도사
종로·성북교구
예배(4부), 금요찬양팀



때마다 성호경을 긋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볼리비아가 예수님을 잘 믿는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인데 빈부 격차가 심한 것에 의문을 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

그렇게 볼리비아에서 만 5년을 살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사람을 살리는 직업은 무엇일지 더욱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이후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드디어 ‘사람을 살리고 싶은 사람’이 꿈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저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틀린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 기뻐했던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저는 미래에 내면을 치유해주는 음악가가 되기 위해 성악을 꿈꾸었으며, 그 친구는 외면을 치유해주는 의사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친구는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공부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채플 시간의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제 어린 시절 꿈을 담을 수 있는 직업을 찾게 된 것이었

습니다. 저는 자리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길을 찾게 해주셔서 무척 감사했지만,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걸어온 목회자의 길이기에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얻기 위해 금식기도와 철야기도를 하며 입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음악을 잠시 내려놓아 신학대학원에 도전해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영락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고비마다 주 함께하심에 저절로 찬양

이 모든 것은 제가 스스로 원하는 일을 찾았다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순간마다 실수도 잊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선택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제 모든 삶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입술은 찬양합니다. 제 삶에 어떤 일들이 준비돼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혹여나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기에 두려울 때도 가끔 있지만,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가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만날**

‘하늘위의교회’ 개척하는 노대웅 목사 ‘가장 낮은 교회’로 세우소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은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65:25)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2022년 12월 18일 주일로 영락교회에서 사임하고 2023년 ‘하늘위의교회’를 개척하게 된 노대웅 목사입니다.

죽을 고비 넘기며 목회자로 세워주심

유아 시절부터 7년간의 병원 생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두 번의 죽을 고비를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주시고, 실패와 좌절의 경험으로부터 목회자의 부름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시절 예배와 제자훈련을 통해 훈련하셨으며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에 대한 소망,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 개척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장로회신학교로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노대웅 목사
하늘위의교회
전 영락교회 고등부 지도목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열정의 소망을 품고, 영락교회에서 사역하며 기도하는 중에 교회 개척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주신 영락교회를 떠나서 개척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열정이 가득함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물론 인간적인 염려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개척의 길 새 소명

부족한 종이 ‘하늘위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특별히 다음과 같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의 말씀과 같이 어떠한 죄인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강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예배 공동체로 세워 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

다.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는 성도들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강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해서, 어떠한 죄인도 품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회개에 이르러 제자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사역을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입니다. 죄인들과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며, 어떠한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도하는 공동체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인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죄인들이 회개하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통해서 상처가 회복되는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다음 세대’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유아 시절부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로 결단하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제자훈련과 목회자를 준비했던 경험과 삶과 교회를 통해 익힌 신앙의 단계와 전도사 시절부터 영아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등 교육 총괄 사역으로 20여 년 익힌 다음 세대 사역을 바탕으로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제자훈련과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세우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삶의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우는 자들

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공동체, 사자와 어린양이 함께 하는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인천 달동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체험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했던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 상처받은 이웃들, 특별히 교육부를 사역하면서 만날 수 있었던 각종 중독(게임, 약물, 성)에 빠진 사람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동성애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정이 깨어져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만남의 자리를 준비하여 함께 하며 모이고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삶의 자리 중심의 모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믿음의 통로’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랑하셔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귀한 교회들에서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하늘위의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제자를 훈련하는 공동체, 회개와 회복의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삶의 자리에서 낫은 자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은혜를 흘려보내는 선교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과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늘위의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기하학 흐름 바꿔자 ‘다빈치 원근법’ 퇴장 무의식 세계 그려낸 ‘최후의 만찬’ 등장

상반된 분야로 인식되던 수학과 미술의 접목이 신선하게 또는 충격으로 다가왔나요? 지난 호에서 명화 〈최후의 만찬〉을 통해 원근법이 기하학 연구를 촉진하여 새로운 기하학, 즉 사영기하학(射影幾何學 Projective Geometry)을 발아시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는 21세기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최후의 만찬〉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수학과 미술의 관련성으로 감상해보시지요.

선구자 두초부터 시작된 원근법 연구

중세 말 화가 두초는 평면적인 중세의 화풍에서 벗어나 입체감 있고 생동감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그림 〈최후의 만찬〉에 새로운 개념 ‘소실점’을 5개 설정했어요. 두초 이후의 화가 기를란다요는 두초에 비해 예수님 옷자락의 주름까지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바닥과 창문의 선까지 한 점에서 만나는 소실점을 두초보다 3개를 줄여 2개로 만들었어요. 화가들이 원근법을 꾸준히 연구한 결과 디르크 바우츠 시대로 오면서 소실점의 개수가 드디어 1개로 줄어듭니다.

16세기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앞의 화가들보다 더욱 역동적으로 표현됩니다. 제자 한 명이 배반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폭풍 같은 선언에 깜짝 놀라 요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포착한 이 그림은 12명 제자를 3명씩 4그룹으로 나누고, 멀리 예수의 머리 뒤에 소실점을 설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도에 따라 이전의 〈최후의 만찬〉들에 비해 훨씬 생생하게 만찬 분위기가 전달됩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텔레 그라치에 교회에 땅린 수도

원 식당 전체 벽면에 그려졌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림 속 천장 모서리 선과 실제 식당 벽면의 천장 모서리 선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빈치는 수학적 공간 계산에 매우 뛰어났는데, 이러한 구도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수도사들이 예수와 함께 만찬을 나누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지요.

뒤러의 판화 〈최후의 만찬〉은 배신자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이 11명의 제자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17세기 프랑스화가 푸생의 그림은 바로크 미술답게 빛과 어둠을 극명하게 대조시켰고, 가룟 유다가 문을 열고 막 나가는 순간을 포착했지요.

다빈치 기법을 부정한 틴토렛토

다빈치와 동시대의 화가이지만 당시 최고로 인정받고 있던 다빈치의 기법을 부정한 화가 틴토렛토의 그림을 감상해봅시다. 그는 다빈치나 다른 화가와는 달리 유다의 배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산 조르조 마조레교회에 그려진 성화는 땅의 음식인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 그림에서는 소실점을



[그림 1] 틴토렛토 〈최후의 만찬〉

찾을 수 없습니다. 틴토렛토도 이전의 작품 〈가나의 혼인 잔치〉에는 소실점을 썼지만, 당대 최고의 다빈치와 똑같은 기법 사용하기를 부정하고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시대적으로 매너리즘 양식이 등장하고자 무대 뒤에서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지요. 수학적으로는 20세기 추상을 알리는 새로운 기하학의 등장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테이블은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놓여있고, 만찬의 주인공 예수와 배신자 유다는 구별하기 힘들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장의 램프에서 솟아나는 연기 속에는 천사들의 무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마가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역동적인 동작과 함께 반려동물까지 보입니다.

무의식을 표현하는 초현실주의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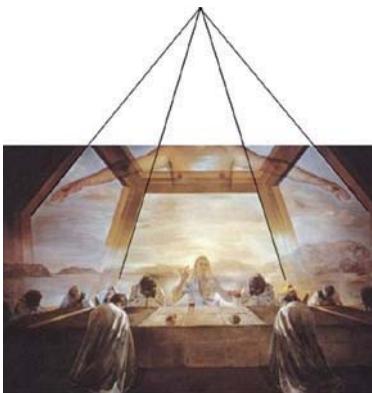
20세기가 도래했을 때 지구는 격동의 세월을 보냅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미국의 경제공황을 겪으며 지식인들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지요. 이에 수학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합니다. 즉 종래 유클리드기하학에서 중요시했던 도형의 평행선, 각의 크기, 면적의 넓이 등을 도외시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형에서 탈피하여 점과 점을 잇는 ‘연결성’만 주목합니다. 1930년대 발아한 이 기하학을 위상기하학(Topology)이라 부르지요. 위상기하학에서는 3차원적 도형에 만족하지 않아요. 4차원, 5차원 등 육안(肉眼)으로 볼 수 없는 높은 차원을 정신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수학에서 위상기하학이 등장할 때 화가들도 원근법을 부정하고 사물을 위상기하학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음 그림 2를 보면 400년간 수학의 공리처럼 굳게 지켜오던 사실적 묘사의 키워드인 원근법이 파괴되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초현실주의자 달리는 3차원 세계를 넘어서 4차원을 표현하고, 의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탠리 스페너의 만화 같은 〈최후의 만찬〉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선언에 제자들이 고개를 끙 숙이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는 이미 알몸으로 부활한 모습입니다. 3차원적 한계를 뛰어넘



[그림2]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
<최후의 만찬>



[그림3] 스탠리 스펜서 <최후의 만찬>



[그림4] 데미안 허스트의 <최후의 만찬>

는 4차원적 시도를 한 것이지요. 마가의 다락방은 특이하게 유리로 된 다면체로 묘사되었습니다. 다면체는 유클리드기하학에서 중요시했던 입체 도형이기도 하지요. 흥미로운 것은 초현실주의 작품인데도, 소실점을 그림에 두지 않고 캔버스 밖에 설정한 화가의 철학입니다. 이는 유클리드기하학의 정신이 서구의 고유 정신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 3은 좀 생뚱맞게 성경의 내용을 만화처럼 묘사한 그림입니다. 영국의 화가 스탠리 스펜서는 12명의 제자에게 똑같은 옷을 입히고, 어린애들처럼 다리는 앞으로 쭉 뻗게 하고, 등에는 천사의 날개를 달았어요. 식탁은 ‘ㄷ’ 모양으로 소실점이 없음을 강조하는 듯해요. 스펜서는 미국 문화의 경박함을 보여주고자 했던 팝아트 계열의 만화 영향을 받았고, 대량생산하는 상품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앤디 워홀의 사조를 이어받았다고 평가됩니다.

데미안 허스트의 <최후의 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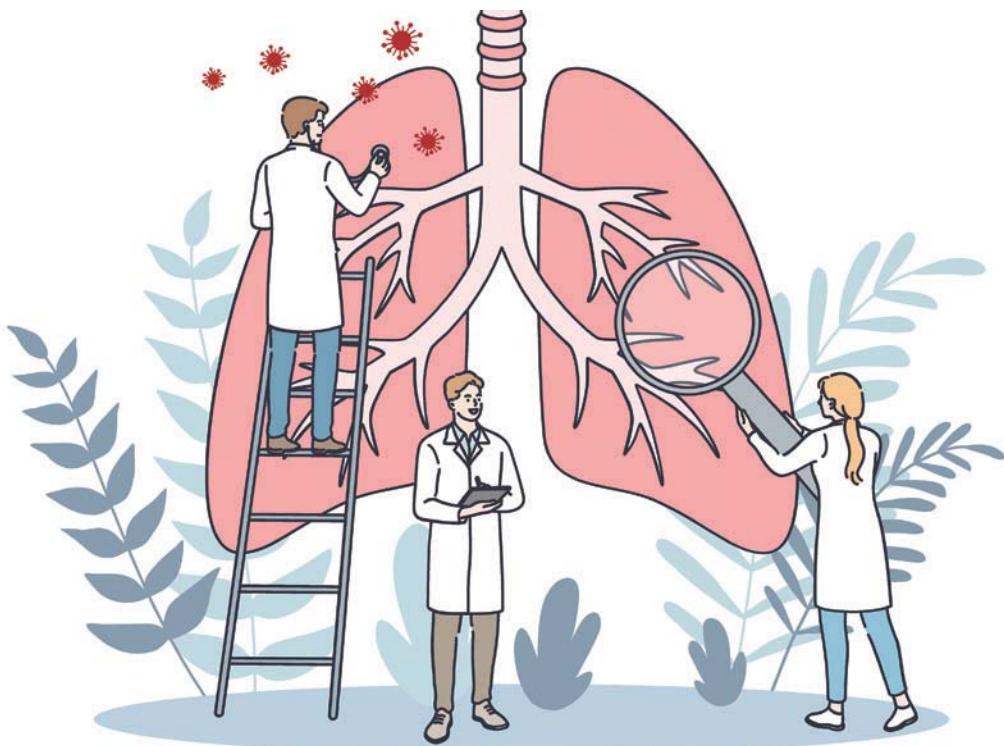
그림 4 데미안 허스트의 <최후의 만찬>은 매우 특이합니다. 1999년 당시, 세계 지도의 이스라엘을 예수로 묘사하고, 핵을 가진 12개국을 제자의 이

름을 가진 나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13개국이 전부 핵보유국이며 특히 미국은 7,000개가 넘는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현재,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14개국이 되는군요. 데미안 허스트는 지금도 활동하는 특이한 화가입니다. 고대 유적에서 발굴한 미라의 두개골(頭蓋骨)에 백금을 입히고 다이아몬드를 8,601개 박은 작품 <For the Love of God>을 발표하여 센세이션을 일으켰지요. 죽음을 의미하는 해골에 영원과 사치스러움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시각적 거부감을 없앤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주제이지만 미술의 화풍은 수학적 사고와 시대사조를 서로 퍼드백하면서 캔버스에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남**



계영희
집사
안양·수원교구
고신대 명예교수

겨울 불청객 호흡기질환 ‘예방의 정석’



겨울철 호흡기질환과 관련한 건강 칼럼들을 보면 ‘겨울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야외와 실내의 온도 차가 커서 신체 저항력이 떨어지고 호흡기질환에 잘 걸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부분적으로 맞는 말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겨울철에 호흡기질환에 잘 걸리는 이유는 추운 날씨 일수록 활동 및 감염력이 강해지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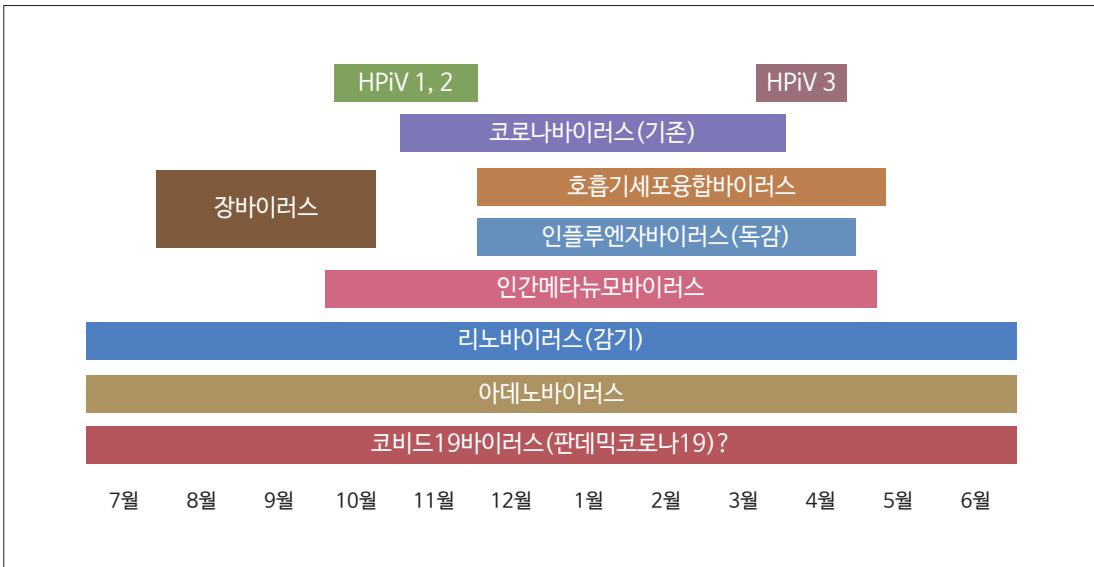
겨울철 호흡기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동물, 식물, 세균처럼 살아 있는 세포에 기생하고, 세포 안에서만 증식이 가능한 미생물로서, 현재까지 6,600여 종의 바이러스가 알려졌습니다. 바이러스를 나누는 분류법에는 몇



임대현 안수집사
성남·분당교구
의료선교부 차장
인하대병원 소아알레르기호흡기분과 교수

[그림 1] 호흡기 바이러스의 월별 유행



출처 : MDedge

가지가 있는데, 바이러스는 보유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DNA 바이러스에는 아데노, 헤르페스, 천연두, 수두바이러스 등이 있고, RNA 바이러스에는 파라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 인간메타뉴모, 에이즈, 코로나, 코비드19, 리노, 인플루엔자, 홍역, 소아마비, C형 간염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서 1년 내내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겨울에 더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림 1은 인체에 해로운 바이러스 중에서 북미 대륙에서 월별 유행하는 대표적 호흡기 바이러스를 도식화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인간메타뉴모바이러스가 겨울철 유행을 보이고 있으며, 감기바이러스로 잘 알려진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

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코비드19바이러스는 1년 내내 감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호흡기질환 관리에서 호흡기 바이러스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겨울철 호흡기질환 관리

겨울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백신접종, 개인 위생 관리, 적당한 운동과 식품 섭취가 중요합니다.

(1) 예방접종

겨울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인간메타뉴모바이러스 중에서 효과적으로 개발된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백신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호흡기질환 고위험군인 어린이와 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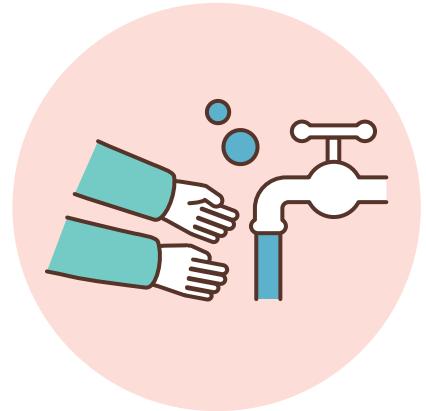
부, 노인에게는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임신부는 보건소 뿐 아니라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접종 가능합니다. 또한 달걀알레르기가 심한 환자인 경우도 세포배양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호흡기질환이 무서운 것은 폐구균에 의한 합병증으로 폐렴에 잘 걸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폐렴구균 접종을 2개월부터 5세 미만 소아와, 면역저하 환자, 만성질환 환자,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감과 폐렴 백신접종은 겨울철 호흡기질환 관리에 필수 사항입니다.

(2) 개인위생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간 거리두기, 마스크 사용, 손 씻기는 이번 코로나19 판데믹 기간에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사회적/개인 간 거리두기가 없어진 상황에서 손 씻기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생 관리법입니다. 추울 때, 바쁠 때, 업무 시작 전후에도, 귀가 후,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후, 모임 후에도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국제한인간호재단과 ‘지역 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공중화장실 99곳을 이용한 성인 4,269명을 관찰하여 “손 씻기”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용변 이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은 사람은 전체의 1.73% 이었고, 비누로 씻은 사람은 29.4%, 물로만 씻은 사람은 36.8% 이었고, 아예 손을 씻지 않은 사람은 33.8% 이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한 번 손을 씻거나 알코올성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마다 급성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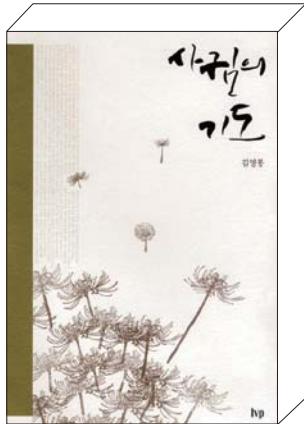
흡기 감염 확률이 3% 가량 줄어들며, 손 씻기를 하루 5~10회 하면 감염성 질환 가능성이 25% 줄어들고, 11회 이상 손을 씻으면 35% 줄어든다고 하였습니다.(출처: 동아일보 2022년 8월 18일)

(3) 적당한 운동과 식품 섭취,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추운 겨울이라고 집에만 움츠려 있지 말고, 햇볕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움직이면서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와 체중에 맞는 신선한 식품을 균형있게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습관은 건강 유지에 필수입니다. **만남**

사귐의 기도



김영봉 지음 / IVP / 2012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따라 행진하라’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행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질문해봅니다. 그 해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귐의 기도』이 책은 신앙인으로서 이미 몸에 벤 기도 생활의 변화를 원하는 분, 또는 기도 생활을 새롭게 익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읽으면 유익합니다. 기도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기도란? 다양한 내용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리”(요한일서 1:13)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을 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여긴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설령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을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실한 소통이나 참된 사귐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일과 유익을 위한 만남, 또는 경쟁과 우위를 취하기 위한 사귐으로 피상적인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통해서 피상적인 일상을 진실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부터입니다. 『사귐의 기도』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기도자 편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여 지속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말로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눈물로 기도의 사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관해 깊이 알게 되고, 더욱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영락교회가 ‘말씀따라 행진하라’ 명하신 뜻에 온전히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박용준 목사
용인·화성교구
선교부(해외), 의료선교부



산상변모주일 찬송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태복음 17:2)

2월의 성가산책에서 다룰 주제는 산상변모주일(Transfiguration of the Lord)이다. 양력과 음력으로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정하고 날들을 계수하듯 교회 생활의 한 해는 교회력(Church Calendar)의 흐름을 따른다. 한 해의 시작은 1월 1일이지만, 교회력에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가 한 해의 시작이 된다. 교회력의 전반기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생애와 고난,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성령강림의 사건까지 시간 순으로 다루고 있다.

찬송 안에는 초대교회,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시대로부터 오랜 세월을 통해 예배와 신앙고백, 교리와 교육 등 신앙생활과 교회의 전반적인 요소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집약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을 통해 교회의 역사(어제와 오늘)를 볼 수 있으며, 찬송에서 교회력의 요소를 찾아 때에 맞는 찬송을 부르는 일은 특정 시기를 지나는 우리의 묵상과 기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인도한다.

2023년의 2월에는 주현절기(Epiphany)와 사순절(Lent)이 맞물려있다. 주현절은 성탄절 후 12일

째 되는 1월 6일로, 성탄절기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이음새 역할을 한다. 산상변모주일은 주현절로부터 이어온 녹색 주일 절기(2023년의 경우 6주간)를 마무리하고 보라색의 사순절기로 넘어가는 문턱에 위치한다. 성탄절이나 주현절과 같이 날짜가 정해져 있는 절기와 달리 산상변모주일은 부활주일로부터 7주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간 자리에 있다. 올해는 2월 19일이다. 그리고 그 주간 수요일(2월 22일)이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린다.

한국 교회에서 산상변모주일은 비교적 생소한 절



백경진 집사
마포·영등포교구
베들레헴찬양대 지휘자

(편 87)
H. Barracough, 1915
느리게 ♩ = 56
창의 모든 옷은 물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시 45:8)
MONTREAL: 8.6.9.6. REF.
H. Barracough, 1915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87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 라
내 주는 쓰 라린 고 통을 다 견 디쳤 도 다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만 저보 았 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 어주 실 때
그 향기내 맘에 사 무쳐 내기 봄되 도다
주지 신심 차가 대 할때 나 눈 물흘리네
내 말 이죄 악에 빠 질때 주나를 불드네
나 주님과 라에 둘 어가 영원히 살겠네
후렴
시 온성보 더 찬란한 저 천성며 나서
이 세상오 신 예 수님 참 내구세 주
예수 그리스도

CHRIST'S GRACIOUS LIFE
3076
Ivory Palaces

B♭ E♭ B♭7 E♭/G E♭ A♭ B♭7/F B♭
1. My Lord has garments so won-drous fine, and myrrh their tex-ture fills; its
2. His life had al-so its sor-rows sore, for at oen had a touch; and
3. His gar-ments, too, were in cas-sia dipped, with heat-ing in a touch; each
4. In gar-ments glo-ri-ous he will come, to o-pen wide the door; and

E♭ B♭7 D7 Gm E♭/B♭ A♭/B♭ E♭
fra- grance reached to this heart of mine, with sor my be-ing thus.
when I think of the cross he bore, my eyes with tear drops start.
time my feet in some sin have slipped, he took me from in clutch.
I shall en-ter my heaven-ly home, to dwell for ev-er more.

Refrain
E♭ E♭/B♭ B♭7 A♭/B♭ B♭7 E♭
(mod) Out of the i-vo-ry pal-a-ces in-to a world of woe,

E♭ D Gm B♭7 E♭
on-ly his great e-ter-nal love made my Sav-ior go.

Congregation: Parts
WORDS: Henry Barracough
MUSIC: Henry Barracough

IVORY PALACES
96-96 with Refrain

기다. 하지만, 이 절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공식 교회력과 성서정과에 명시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생애에서 고난과 십자가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신 마지막 순간이기에 성탄, 주현, 부활절과 더불어 흰색을 공유하는 중요한 절기이다.¹

현재 사용하는 21세기 새찬송가에서는 이 절기를 위한 분류가 없다. 변화산 사건을 기념하며 부르기 좋은 찬송으로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찬송은 피아니스트였던 헨리 배러클로(Barraclough, 1891~1983)가 1915년 몬

트리트 캠프 집회에서 설교에 감동을 받아 쓴 찬송이다. 설교의 본문은 ‘메시아 예언시’인 시편 45편 이었는데, 8절의 내용이 이 찬송의 중심이 된다:

왕의 모든 옷은 물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시편 45:8)

원곡의 제목도 시편의 내용을 반영한 “상아궁(Ivory palaces)”이다. 배려클로는 설교를 들은 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작사, 작곡을 마치고 다음날 아

1 흰색은 흠 없는 순결, 거룩함, 완전, 위엄, 영광, 즐거움의 색이다. 이는 신성을 나타내는 색상이며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같은 기쁜 축제와 그리스도의 생애 중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사용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침 집회에서 직접 반주로 찬양팀과 함께 노래했다고 한다.

1절은 주님의 아름다운 예복에 대해 언급한다. 이 옷감이 품은 향기는 시편 본문에서 말하는 ‘몰약 (myrrh)’에 기초한 내용으로서, 그 향기가 나의 마음에 닿을 때, 나의 존재가 기쁨으로 전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겪으신 고단한 삶의 여정을 이야기한다. 이 역시 시편 본문에서 언급하는 ‘침향(aloes)’이 가지는 쓴맛에 기초한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는 고백으로 이어진다.

3절은 시편 본문의 ‘육계(cassia)’를 다룬다. 계수나무 껍질은 치료재로 사용되는 만큼, 믿음으로 그 옷을 만지고 치유를 입은 예인의 이야기를 연상하게 한다. 뒤이어 나의 발이 죄로 인해 실족할 때마다 나를 불드시는 손길을 고백한다.

무엇보다 후렴을 언급하고 싶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Out of the ivory palaces into a world of woe,
only his great eternal love made my Savior go.

후렴구에서 노래하는 것은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던 왕께서 그 상아궁을 떠나 인류의 불순종으로 저주받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 위대하고 영원하신 사랑으로만 가능했던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산상변모주일이 주님의 공생애 사역을 상징하는 주현절기에서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이 찬송은 해당 교회력의 흐름을 매우 적절하게 다루고 있으며, 상반된 분위기의 양쪽 절기 정서를 잘 이어주고 있다. 또한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던 메시아의 예복이 신약 시대 변화산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그 예복이 지닌 다양한 의미들이 변화산 사건의 이전과 이후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시편이 가지는 넘치는 영감과 끝을 알 수 없는 깊이에 다시 한번 경탄하게 된다.

말씀과 같이 찬송도 알면 알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다. 이 찬송을 되뇌며 교회력의 흐름을 따라가는 은혜로운 2월이 되기를 바란다. **만날**

천국으로 가는 계단(라몬 율 기념비)

글 정재원 편집위원

Stairway to Heaven:

Monument to Ramon Llull



스페인의 유명한 조각가인 조셉 마리아 수비라치가 1976년 콘크리트를 소재로 만든 8m 70cm 높이의 조형물로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고도 불리는 이 조형물은 선교사인 라몬 율에게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조형물을 구성하고 있는 8개의 직육면체 콘크리트로 제작된 벽돌은 하단부부터 상단부의 꼭대기까지는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하나하나 그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바위를 시작으로 불, 초목, 사람, 하늘, 천사, 마지막 꼭대기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물리적 세계(바위, 불, 초목)와 정신적 세계(하늘, 천사, 하나님)로 나뉘는 두 세계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 중적인 존재로 각자의 기준을 상단에 두느냐 하단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삶을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에 기준을 두고 더 높은 곳을 소망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이 조형물은 스페인 몬세라트 수도원의 가장 아름다운 조형물 중 하나입니다. **만남**



유니게학교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를 위해 실시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유니게 학교**
Eunice school

제53기 유니게학교 과정 모집 (오프라인)

기간 : 2023년 3월 4일(토) ~ 5월 20일(토), (11주간 진행)
 대상 : 생후 24개월 ~ 48개월 된 유아와 부모 1분 (선착순 30명)
 참가신청 : 2월 19일(주일) ~ 2월 26일(주일) 우측 QR코드로 접수
 등록비 : 100,000원(교재 및 활동자료 포함) / 형제·자매 50,000원
 교육일정 : 1) 유니게학교 예배 및 어린이 활동
 2) 부모 소그룹 나눔
 3) 유아 조이풀키즈(오감과 함께하는 음악 수업)
 4) 가족소풍
 문의 : ☎ 02-2280-0320 / 010-4101-4008





전세대 성탄예배 ‘다시 예수의 길로’



2022년 12월 25일은, 송년주일이며 성탄절로 전세대 성탄예배(1부~4부)를, 사랑부와 중·고등부가 2부를 시작으로 각 교육부, 교회학교가 전세대와 함께 예배드렸다. 여는 영상에 이어 촛불점화와 연합연극팀의 성극 공연이 진행되고 드럼의 박자에 맞춰 전 좌석에서 트라이앵글, 에그

쉐이커, 캐스터네츠 등으로 합주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하였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때가 차매(갈라디아서 4:1~7)’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셨다.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새로 시작하게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와 말씀,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자’고 전했다. 베다니광장에서는 성탄의 빵을 선물로 받으며 성탄축하 메시지와 새해 하나님과 나의 다짐, 기도제목을 적은 향택(hangtag)을 성탄트리에 장식하며 ‘2023년 첫 달 기도드림’과 ‘2023년 말씀따라 행진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신실한 영적 예배자로 ‘영락 오이코스’를 새로 시작하기를 다짐했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성탄 축하 음악회 - 베들레헴찬양대 <메시아> 연주

2022년 성탄 축하 음악회가 24일 저녁 7시 베다니홀에서 전 성도들이 1, 2층을 가득 메운 가운데 뜻깊게 드려졌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성탄의 의미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성탄메시지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십니다. 찬양대 이름으로 보면 40주년을 맞은 베들레헴찬양대가 가장 적격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 1년 내내 성탄의 의미가 삶으로 탄생하길 바랍니다.”

이날 베들레헴찬양대는 헨델의 메시아를 새롭게 해석하여 연주했다. 베들레헴찬양대 백정진 집사 지휘와 김진 집사의 오르간 연주로 소프라노 김제니, 알토 김미경, 테너



양인준, 베이스 김지단, 알테 무지크 서울의 협연으로 이루어졌다.

취재 인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사회봉사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열어

사회봉사부는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19일(월) 교회마당에서 관내 구청 관계자 및 사회봉사부원들과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을 가지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나눈 김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이수자이신 한복선 요리연구가의 대복식품 김치공장에서 만든 김치로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훈훈한 나눔에 의미가 더 깊었다. 5kg포장으로 모두 1,150박스 2,000만원 상당의 김치를 중구 관내를 중심으로 인근 종로구 등 지역의 지원기관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위로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홍노 장로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올라 서민의 삶이 힘들어졌다”며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및 외롭게 생활하는 독거노인, 결손가정 등에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웃의 손길로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공 박홍기 집사(사회봉사부)

북한선교부, 통일 후 북한교회 재건 기금 1억원 전달



북한선교학교 수료자 연합회(회장 문영환 안수집사·이하 북선연)는 1월 18일 한경직목사기념관에서 3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모아온 1억 원의 기금을 김운성 위임목사에게 전달했다. 북선연은 1998년 9월 1기 89명으로 시작하여 2015년 25기까지 총 2,293 명이 수료했다.

북선연은 탈북민 선교에 힘써오며 탈북민 도시체험, 정착 결연행사, 탈북민 재소자 사역, 하나님 평화교회에 성경책을 지원했다. 북선연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영락교회 출신 탈북민 목회자, NK국제학교 학생 및 자유인예배 교인 등 형편이 어려운 자유인에게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는 중 일정 금액이 모여져 기금 전달식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에게 통일의 길을 열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속히 통일을 이루어 저와 북선연 회원들이 있는 동안 북한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 “앞으로도 복음통일학교 수료자와 함께 새로운 소단체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는 북한선교연합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제공 차기영 집사(북한선교부)

고등부찬양대 <영고찬> 정기연주회 ‘놀랍고 위대한 기적’

영고찬(영락고등부찬양대) 정기연주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열리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25일 주일 찬양예배 후 선교관에서 개최됐다.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영고찬 정기연주회는 26명의 고등부 재학생과 18명의 졸업생이 악기와 목소리를 통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으며, 김운성 위임목사, 교육부 부장장로들을 비롯하여 학부모들과 역대 고등부 찬양대 졸업생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우리들의 2022년’이라는 순서를 통해 고등부가 음악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는 한편, ‘우리들의 크리스마스-성탄절 칸타타’의 순서를 통해 성탄절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역대 고등부 졸업생들이



함께 모여 핸델의 <할렐루야>를 부르며 고등부를 보호하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제공 정창대 전도사(고등부)

영락사회복지재단 박홍준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박홍준 장로가 취임했다. 2022년 12월 22일(목) 영락교회 기념관 소강당에서 드린 이·취임감사 예배를 통해 김운성 위임목사는 “간절함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박남진 장로와 박홍준 장로의 이·취임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7년간 영락사회복지재단을 이끌어온 12대 박남진 장로의 뒤를 이어 1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홍준 장로는 취임사에서 “세상에 살면서 좋은 씨앗을 뿌리라는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며 “어려운 시절 뿌렸던 씨앗이 영락사회복지재단을 만든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세상



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회복지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신년 예배, 신년기도회 개최

2023년 1월 1일 주일 새해 첫날 드린 신년예배는 본당과 부속실에서 '말씀따라 행진하라' (민수기 9:23)는 표어를 걸고 새해 첫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다.

'말씀따라 행진하라(민수기 9:15~23)'의 말씀을 전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만 순종하며 따르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것으로 축복받는 영락의 성도가 되길 기원한다"고 권면했다.

이날 3부예배 시 진행된 임직식에서는 권사, 집사,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의 직분자들은 기립하여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성도들의 격려 박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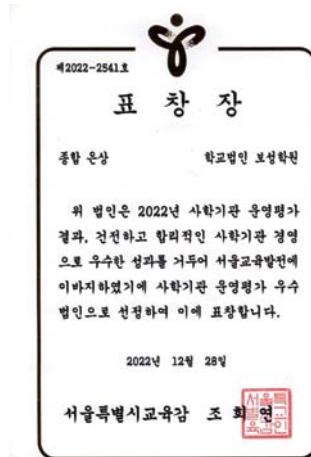
신년예배에 이어 1월 2일(월)~4일(수) '말씀따라 행진하라' (민수기 9:23) 주제로 신년기도회가 올해도 본당에서 열렸다. 기도회는 2일 저녁 7시 저녁기도회로 개회하여 김운성 위임목사의 '다시 확인합시다(요한복음 3:16)'는



말씀을 시작으로 둘째, 셋째날 새벽, 오전 예배는 부목사의 말씀, 저녁 예배는 김 위임목사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매 예배는 축도 후, 세계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와 영락교회 위해, 개인과 가정을 위해 합심기도로 이어졌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학교법인 보성학원, 서울시교육청 '우수사학 종합 은상' 수상



보성여자중학교·보성여자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보성학원(이사장 정천우 장로)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22년 사학기관 운영평가에서 종합은상을 수상하고 포상을 받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학기관 운영평가는 서울시에서 초·중등학교를 경영하는 123개 법인을 대상으로 재정, 운영, 행정 3가지 영역에서 7개 항목과 25개 지표를 평가하여 우수 학교법인을 선정한다.

이번 수상은 보성학원 이사회와 교직원들의 신실한 노력의 결과로서 발전하는 학교법인의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되어 타학교의 귀감이 된다. 보성학원은 '신앙·학력·교육환경 강화'를 학원의 목표로 삼고 있다.

제공 보성학원

말씀 따라 행진하는 교육부, 신년 기도회 열어



교육부 주관으로 교육부 교역자 및 임원, 교사 350여 명이 참여한 신년 기도회가 1월 28일(토) 오후 3시부터 드림홀에서 열렸다.

1부 경건회는 교역자 찬양팀(이종실 목사 외)의 찬양으로 시작하여 박홍준 장로의 기도, 성경봉독에 이어 김운성 위임목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히브리서 11:11~12)’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성경을 보면 한 명의 자식을 낳으므로 그 한 명을 통해 믿음이 계승되어 승리의 미래가 펼쳐지듯이 교회학교 교사가 뜨거운 열정으로 맡겨주신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음세대 역군이 되도록 말씀의 권세와 사랑으로 포용하며 비장한 각오로 역동적 역사를 이루어가자”라며 권면했다. 최재선 목사가 인도한 기도회에서는 각 부서별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운성 위임목사의 축도로 마친다.



2부 각 부서소개는 이동우 안수집사의 진행으로 교육부 산하 13개 부서의 부서장 및 임원, 교역자, 리더, 교사를 소개했다. 신임 부서장들은 3년간의 비대면 예배 출석률이 저조해진 현장 예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다음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에 적용할 방법을 고심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교회교육의 새로운 방향성과 비전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기도를 다짐했다.

마지막 순서로 각 교회학교 교사의 섬김을 응원하며 출석상 시상, 저녁식사, 부서별 다과 및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박홍준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2023년 힘차게 출발하여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육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쓰자”고 당부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2023년 자치단체장

제1남선교회 조병준 장로
제2남선교회 전태성 안수집사
제3남선교회 정인기 집사
제4남선교회 이창곤 집사
제1여전도회 황숙희 권사
제2여전도회 박옥경 권사

제3여전도회 박정윤 권사
제4여전도회 김은혜 집사
부부 선 교회 이하나 집사
청년선교회 윤성종 집사
안수집사회 강명옥 안수집사
권사회 송경심 권사

항존직 등 319명 은퇴식...“성도의 삶엔 은퇴 없죠”



지난해 12월 25일(주일) 찬양예배 시 강승훈 목사의 인도, 박지운 목사 설교 후 은퇴식이 거행되었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항존직 18명(장로 10명, 안수집사 8명)과 은퇴권사 161명, 서리집사 남 87명, 여 53명 등 모두 319명의 은퇴

를 선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위임목사는 “성도의 삶에 은퇴란 없다”라며 “은퇴 이후에도 기도에 힘쓰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생 되길 바란다”라고 성도들과 함께 축복의 박수를 보냈다. 이와 함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온 장로, 안수집사에게 공로패를, 권사와 서리집사 은퇴자 전원에게 감사장과 성경책을 증정했다.

박남진 장로는 은퇴자를 대표해 “주님 그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가르친 목회자와 성도님께 감사하다”며 “은퇴란 일선에서 물러나는 후퇴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행진하는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최찬훈 은퇴장로 소천…교회장 엄수

최찬훈 은퇴장로가 지난 1월 16일(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91세.

1931년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온화한 성품으로 교육, 선교, 건축 등 각 부서의 직무를 감당하여 교회 사랑을 실천하셨다.

고인은 1967년 교육부 교사를 시작으로 구역장으로 섬기며 1977년 집사 안수 후, 교육부 부감, 평신도부(청년부) 총괄차장, 전도부 부장, 남선교회 회장, 평신도부(경로대학) 학감, 청년1부 부장, 베다니찬양대장, 노회남선교회수석부회장을 맡았다. 이후 1987년 12월 장로로 장립되어 청년부장, 노회 남선교회장, 영락기도원 운영위원장, 총회 사회복지재단 이사, 음악부장, 시온찬양대장, 50주년기념사업회(시설분과)부위원장, 실로암 안과병원 이사, 중국연길교회 건축위원, 메시야연주 운영위원장, 영락수양관 운영위원장, 영락기도원 건축위원장을 역임하며 2001년 12월까지 시무장로로 섬기셨다.

장례예식은 교회장으로 1월 18일(수) 오전 8시 30분 본당에서 김운성 위임목사 집례로 드려졌다. 예식은 최승도 목사 인도, 김규홍 은퇴장로가 고인을 추모하는 조사, 이철신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장지인 영락공원 묘원에서 최승도 목사의 집례로 하관예식이 있었다. 유족으로 부인 정재은 권사와 1녀 윤희를 두었다.



故 최찬훈 장로님 영전에

최찬훈 장로님 댁을 심방하려고 준비했으나 다음 날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듣게 되어, 안타깝고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를 누구도 알 수 없고 사정에 따라 지체되거나 연기되는 일도 없으며, 더욱이 고별인사도 제대로 나눌 수 없었습니다.

고 최찬훈 장로님께서 낡은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한 결과, 자비로운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수고한 최 장로님의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손수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 천국의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신 최 장로님에 대하여는 땅에서 우리가 더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최 장로님은 일찍 주님을 영접하였고 고 한경직 원로목사님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영락교회의 성실한 성도로서 정재은 권사님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하였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보기 드문 따님의 효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최 장로님은 집사와 장로의 직분을 맡아, 각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은퇴하기까지 맡은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여 교인들의 귀감을 보였고 장로님은 본래 온화한 성격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어 모두 호감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길을 살았든지 모아둔 재산이 얼마이든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어떠하든지 불문하고 성경에 기록된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고 부활과 영생하는 것임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유가족에게는 한평생을 가정으로 함께 살아온 아버지를 보내는 육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어떤 말로 위로 드릴 수는 없으나,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으로 모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깊은 신앙을 이어받아 기독교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더욱 최씨 가문이 창대하시기 바라면서 이에 고 최찬훈 장로님께 삼가 조사를 드립니다.

2023년 1월 18일

김규홍 은퇴장로

2023 여전도회 헌신예배…“마리아의 순종으로 쓰임받자”



2023년 여전도회 헌신예배가 지난 1월 15일(주일) 본당에서 찬양예배로 봉헌됐다.

‘말씀으로 행진하는 여전도회’ 주제로 열린 헌신예배는 한복으로 차려 입은 제 1, 2, 3, 4여전도회 증경회장단, 임원 및 실행위원들이 참여하여 헌신을 다짐했다. 황숙희 권사(제1여전도회장)의 인도로 박옥경 권사(제2여전도회장)의 기도, 김은혜 집사(제4여전도회장)의 성경봉독으로

이어졌다.

갈릴리찬양대의 찬양 후, 초청 강사인 반태효 목사(방주교회)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요한복음 2:1~11)의 말씀을 통해 “국가, 교회, 가정 모두 어려운 이 때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을 실천하는 여전도회원으로서 물이 포도주 되듯 변화의 주역이 되어 구원의 여성으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선교사역에 쓰일 봉헌의 시간에는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의 봉헌송과 박정윤 권사(제3여전도회장)의 봉헌기도가 있었다. 이어 사역 보고로 지난해 각 1, 2, 3, 4여전도회 중점 선교 사역 활동을 담은 영상을 관람한 후, 새롭게 쓰임 받기를 결단하며 여전도회가 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초대합니다

2023년 상반기 전도훈련학교

토요반: 2023.3.11-6.10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봉사관 지하 예배실

화요반: 2022.3.7-5.30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12시 30분), 기념관 4층

신청방법: 영락교회 홈페이지, 주보광고 QR, 베다니광장 부스
전도부 사무실(기념관 6층, 주일오전)

신청기한: 2022.2.26(주일)
문의: 토요반(010-7492-0624)
화요반(010-3354-3835)

신청 QR

영락교회
전도부 전도훈련팀

2023년 신임교역자 프로필

부목사



방덕종 목사

교육총괄, 대학부, 교회교육원, 교사교육부
장신대 신대원
리버티 신학대학원 목회리더십
영세교회 부목사



황재영 목사

인천교구, 전도부(주중사역), 선교부(문화)
장신대 신대원
장신대 목회상담학
영락기도원 목사

부서지도목사



정준희 목사

국제예배부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 신대원
토치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신약학
승의여대 교목실장



이종실 목사

중등부
장신대 신대원
서울드림교회 부목사

전임전도사



최에녹 전도사

강동·송파교구, 청년부
서울신대 선교영어학
영락교회 준전임(청년부)



장대성 전도사

교육부, 대학부
장신대 신학
영락교회 준전임(대학부)



김진재 전도사

강북·도봉교구, 대학부(베드로부)
한국외대 영어통번역학
영락교회 준전임(고등부)

2023년 목회 분담표(목사)



최승도 목사

13교구(서초)
제자양육훈련부 총괄
한경직기념사업회, 역사위원회



김정희 목사

1교구(강남)
목회행정



박지운 목사

4교구(중구·용산)
목양부, 권사회



최한운 목사

9교구(마포·영등포)
예배부, 음악부
안수집사회



박성은 목사

2교구(강동·송파)
새가족부



김충섭 목사

3교구(성동·광진)
사회봉사부, 친교부
평생대학, 사회복지재단



남정열 목사

15교구(성남·분당)
IT미디어부, 자원봉사부



권혁일 목사

8교구(동대문·중랑)
영성, 영락수련원
영락기도대



김형찬 목사

6교구(강서·구로·양천)
제자양육훈련부



조두형 목사

선교 전담
선교부 총괄, 1남1여



전병주 목사

12교구(강북·도봉)
상담부, 가정사역



최재선 목사

17교구(안양·수원)
전도부 총괄, 갈보리



강승훈 목사

5교구(관악·동작·금천)
경조부, 홍보출판부
할렐루야



탁현수 목사

16교구(고양·파주)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베들레헴



김진우 목사

7교구(서대문·은평)
북한선교부, 자유인예배, 베다니



이후림 목사

10교구(종로·성북)
선교부(국내, 학원)
2남/2여, 임마누엘



이창조 목사

11교구(노원)

목양부(제직교육, 교재)
갈릴리, 4부예배찬양



오병훈 목사

청년부

3040세대(부부, 청년)



박용준 목사

18교구(용인·화성)

선교부(해외), 의료선교부
3남/3여, 호산나



방덕종 목사

교육 총괄

대학부, 교회교육원, 교사교육부



황재영 목사

14교구(인천)

전도부(주중사역)
선교부(문화), 4남/4여, 시온



이영호 목사

고등부



신주현 목사

아동부



홍지연 목사

영·유아·유치부



이종실 목사

중등부



박상엽 목사

설악수양관



현성인 목사

IT미디어부



정준희 목사

국제예배부



이성재 전도사

영락기도원



박찬양 전도사

영락수련원

2023년 제직부서 부장(장로) · 차장(안수집사 및 권사)

당회					
	서기 박일환	부서기 차영균			
선교부					
	부장 김재완	최범용	손두상	조성휴	
북한선교부					
	부장 공수일	김건철	김재연	김용선	최인용
의료선교부					
	부장 최성준	홍석훈	임대현		
사회봉사부					
	부장 김두형	오영철	김석곤	신진식	
교육부					
	부장 박홍준	이동우	박일수	김정훈	윤창완

목
양
부



부장 정경섭



이일호



김해용



문창웅

전
도
부



부장 임우섭



조성권



김금성



한상복



송경훈

제자양육·훈련부



부장 김병욱



박경수



남정웅



정광훈

새
가
족
부



부장 김명권



김승덕



김병기



조두진

음
악
부



부장 김지언



김창섭



김형태



김성주

친
교
부



부장 양성환



최성문



박태용



김봉희

2023년 제직부서 부장(장로)·차장(안수집사 및 권사)

상 담 부				
	부장 차영균	고두선	이정수	박승택
경 조 부				
	부장 손동호	이성두	오은택	
홍 보 출판 부				
	부장 김태영	김재원	이형일	
IT 미 디 어 부				
	부장 이인수	강효식	황문선	김용범
재 정 부				
	부장 이창선	민병준	조준호	김수홍
시 설 관리 부				
	부장 오동희	최은오	임종환	김만석

자원봉사부



부장 강동호



박진배



김기선



김혁태

서무부



부장 차재능



김영건



허영춘



이영화

예산위원회



위원장 신은정



한덕호



김형진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영남



송영백



함윤호



강상진

영락기도원



기도원장 장순재

행정처



행정처장 김영철

제직회



서기 김은형



부서기 안자이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신규가입 안내

주님의 몸 된 영락교회를 위해 오랜 세월 헌신 봉사하고 은퇴하시는 제직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상조회에서는 은퇴하시는 제직이 상부상조하여 노후 준비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을 임기로 은퇴하시는 제직만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본 상조회 회원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 **가입 자격 :** 2022년 12월 31일자로 은퇴하는 제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 ▶ **가입 기간 :** 2023년 1월 1일(주일) ~ 12월 31일(주일)
- ▶ **가입 장소 :** 50주년기념관 1층 회비 수납장소(은퇴제직상조회)
- ▶ **가입 절차 :** 배부된 가입원서에 교회 교적부와 일치하도록 작성 및 날인하여 수납창구에 제출(가입원서는 수납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음).

참고사항

① 회원자격:<상조회 회칙 제5조 1항>

본회는 영락교회에서 제직으로 헌신 봉사하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신 교역자 및 장로(협동포 함), 안수집사, 권사, 남녀 서리집사로서 은퇴 후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구성한다.

② 회비 납부의무:<상조회 회칙 제8조 2항>

- 가입비 : 10만 원(1회만 납부)
- 연회비 : 신규가입 시 2만 원 그 후 매년 1만 원
- 부조금 : 정회원 별세 시마다 1만 원

③ 수혜사항:<상조회 회칙 제9조 1항, 8조 2항>

- 부의금: 6,000,000원 지급 (수권자에게 지급)
- 회원 가입 후 만 17년(204개월) 이후부터는 부조금(1만 원) 납부 면제함<연회비 2만원>

기타 문의 사항은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수납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08시~16시까지 ☎ 02)2280-0238, 간사: 권철 안수집사 010-5339-5861>

영락 성경 넌센스 퀴즈

성경 인물 중 시험을 보면
항상 100점을 받는 사람은?



아기를 낳기 바라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하는 성경은?



성경 인물 중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인류 최초의 동물원은?

빨리와
늦으면
두고간다!



성경 중 제일 짧은 성경은 시편 117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두꺼운 장은 어디일까요?



2월 목회력

4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5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10일(금)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 축복 특별기도회
12일(주일)	제직회
12일(주일)~17일(금)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수련
17일(금)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 축복 특별기도회
19일(주일)	상담부 공개강좌(상반기), 제직부총회, 심방준비회
22일(수)	재의 수요일
24일(수)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 축복 특별기도회
25일(토)	아동부 봄맞이성경학교
26일(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사회봉사주일, 신임권사 임직 및 현신예배

※ 2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운재의 함께해보아요

넌센스 퀴즈 정답

영락 성경
넌센스 퀴즈

성경 인물 중 시험을 보면 항상 100점 받는 사람은?
미 릴 암

아기를 낳기 바라는 사람들이 폭 읽어야 하는 성경은?
에 배 소 사

성경 인물 중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사 라

인류 최초의 동물원은?
노 아 의 방 주

성경 중 제일 짧은 성경은 시편 117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두꺼운 장은 어디일까요?
겔 칭

2023년 2월호 통권 588호

발 행 2023. 2.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김태영

편집위원 권오란 박선이 정용성 김경옥
김성수 안동현 유혜정 이재향
인미 정재원 정주리 최윤미

교열 계영희 이광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www.youngnakmn.net



월간 '만남' 웹진



월간 '만남' 앱
안드로이드용



월간 '만남' 앱
아이폰용

2023년 교역자 목회분담표

■:목사 □:전도사 ●:파트목사 ○:준전임 전도사 ○:파트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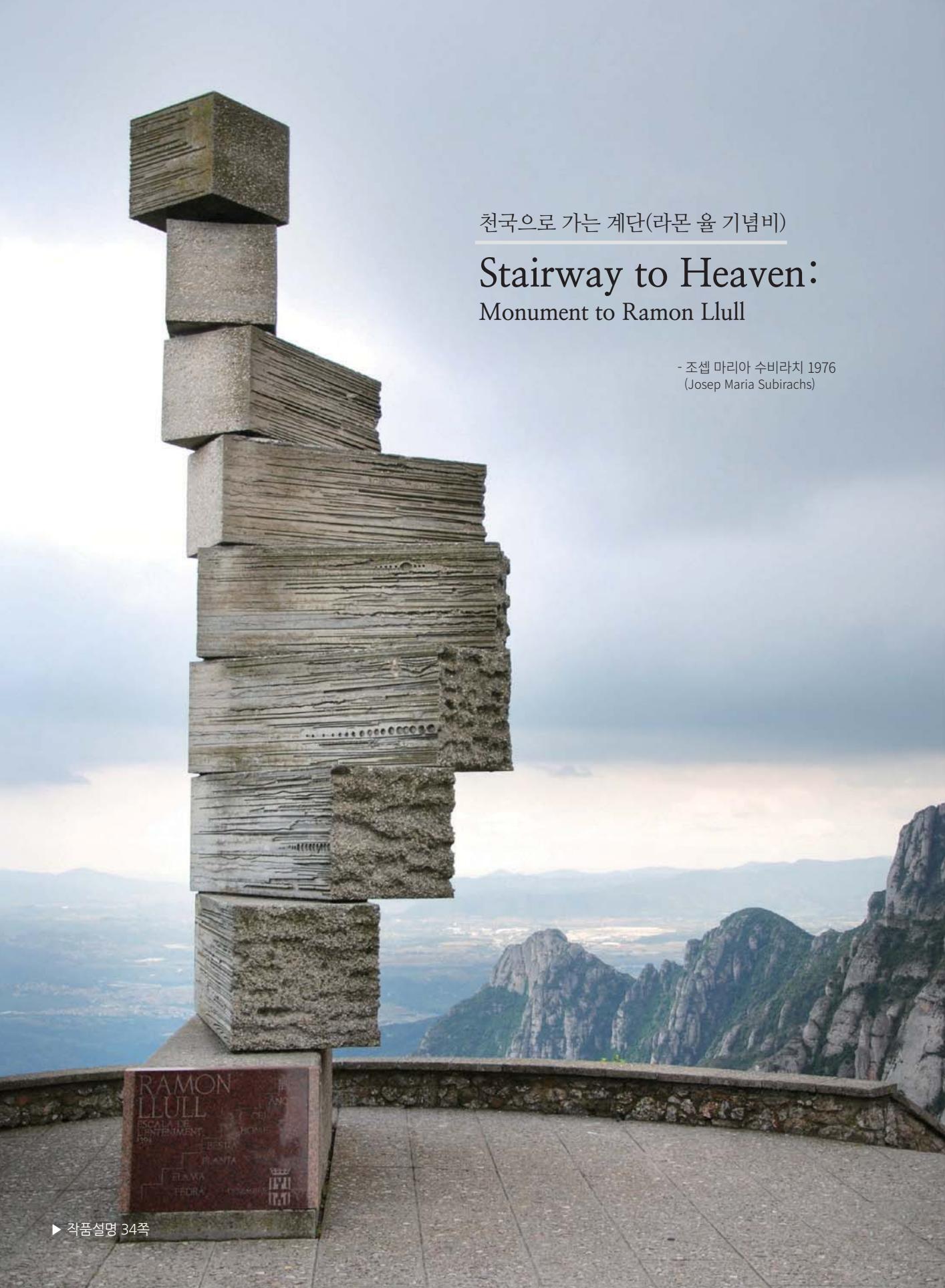
예배	예 배 위 원 회	■ 최한윤 ■ 이창조(4부)	■ 권혁일(기도) □ 박명일(4부)	□ 권영현	□ 한영훈(기도)
	음 악 부	■ 최한윤	□ 김재훈(한마음찬양반)		
	금 요 찬 양 팀	□ 남경식	□ 박명일	국 제 예 배	■ 정준희 ○ 최성은 ○ 변성국
	교 육 부	■ 방덕종	□ 장대성	사 랑 부	○ 전찬욱 ○ 이창근
	영 · 유아 · 유치부	■ 흥지연(영아부) ○ 윤혜은(유치부)	○ 문주희(유치부) ○ 최하영(영아부)	○ 권희주(유아부) ○ 안태성(유아부)	
	아동부 (C e b C)	■ 신주현(소년부) ○ 이빛나(유년부)	○ 배정일(초등부) ○ 김해민(초등부)	○ 흥준표(유년부) ○ 박요환(소년부)	○ 김자용b(CebC)
	중 등 부	■ 이종실	□ 곽영진	○ 강하림	○ 정근우
	고 등 부	■ 이영호	□ 정창대	○ 심현석	○ 김태용
	대학부 (베드로부)	■ 방덕종	□ 장대성	□ 김진재	○ 김철환
	청 년 부	■ 오병훈	□ 김지용a	□ 최예녹	○ 흥수미
교육	교 회 교 육 원	■ 방덕종	□ 양동욱	3040세대(부부, 청년)	■ 오병훈
	교 사 교 육 부	■ 방덕종	□ 양동욱		
	목 양 부	■ 박지운	■ 이창조	□ 김재훈	□ 김모세
	제 자 양 육 훈 련 부	■ 최승도	■ 김형찬	■ 탁현수(소그룹)	□ 박성민(소그룹) □ 최원석
	새 가 족 부	■ 박성은	□ 장민희	□ 박소망	
	전 도 부	■ 최재선	■ 황재영(주중사역)	□ 남경식	□ 최원석(직장인예배)
	경 조 부	■ 강승훈		친 교 부	■ 김충섭
	평 생 대 학	■ 김충섭	□ 박명일	상 담 부	■ 전병주 □ 김하현 ○ 이영미 ○ 최진량
	영 락 기 도 원	□ 이성재		설 악 산 수 양 관	■ 박상엽
	영 락 수 련 원	■ 권혁일	□ 박찬양	□ 장민희	□ 김진재
교구 목양	선 교 부	■ 조두형 □ 김하영	■ 이후림(국내) □ 전재량(청년)	■ 박용준(해외) □ 김지용a(부부)	■ 황재영(문화) □ 박소망(외국어예배, 선교훈련) □ 최예녹(문화)
	의 료 선 교 부	■ 박용준			
	북 한 선 교 부	■ 김진우	□ 윤연상	○ 정하민	○ 정성훈
	학 원 선 교	■ 이후림			
	1남선교회 1여전도회	■ 조두형	3남선교회 3여전도회	■ 박용준	
	2남선교회 2여전도회	■ 이후림	4남선교회 4여전도회	■ 황재영	
	안 수 집 사 회	■ 최한윤	권 사 회	■ 박지운	
	사 회 봉 사 부	■ 김충섭	□ 박화목		
	목 회 행 정	■ 김정희	□ 김예성		
	IT 미 디 어 부	■ 남정열	■ 현성인	□ 김민석	□ 김하현
목회 행정	자 원 봉 사 부	■ 남정열		홍 보 출 판 부	■ 강승훈
	한 경 직 목사 기념 사업회 / 역사 위원회	■ 최승도		□ 박성민	

교구(목사&전도사)

1교구/ 강남	■ 김정희	□ 김재훈	10교구/ 종로 · 성북	■ 이후림	□ 박명일
2교구/ 강동 · 송파	■ 박성은	□ 최예녹	11교구/ 노원	■ 이창조	□ 김하현
3교구/ 성동 · 광진	■ 김충섭	□ 김민석	12교구/ 강북 · 도봉	■ 전병주	□ 김진재
4교구/ 중구 · 용산	■ 박지운	□ 남경식	13교구/ 서초	■ 최승도	□ 김모세
5교구/ 관악 · 동작 · 금천	■ 강승훈	□ 최원석	14교구/ 인천	■ 황재영	□ 한영훈
6교구/ 강서 · 구로 · 양천	■ 김형찬	□ 박소망	15교구/ 성남 · 분당	■ 남정열	□ 박성민
7교구/ 서대문 · 은평	■ 김진우	□ 권영현	16교구/ 고양 · 파주	■ 탁현수	□ 곽영진
8교구/ 동대문 · 중랑	■ 권혁일	□ 김예성	17교구/ 안양 · 수원	■ 최재선	□ 박화목
9교구/ 마포 · 영등포	■ 최한윤	□ 전재량	18교구/ 용인 · 화성	■ 박용준	□ 정창대

음악부

임 마 누 엘 찬 양 대	■ 이후림	갈 릴 리 찬 양 대	■ 이창조
갈 보 리 찬 양 대	■ 최재선	할 렐 루 야 찬 양 대	■ 강승훈
시 온 찬 양 대	■ 황재영	베 다 니 찬 양 대	■ 김진우
호 산 나 찬 양 대	■ 박용준	교 회 음 악 아 카 데 미	■ 최한윤
베 드 레 헴 찬 양 대	■ 탁현수		



천국으로 가는 계단(라몬 율 기념비)

Stairway to Heaven: Monument to Ramon Llull

- 조셉 마리아 수비라치 1976
(Josep Maria Subirachs)